

10월 지육시세는 2,900원/kg 예상

매년 추석 이후 약 2주간은 돼지고기 소비는 대폭 줄어서 육가공 업체는 돼지고기 판매 급감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도축 물량을 감소하고 삼겹살까지도 냉동을 시키는 시기가이다.

그러나 돼지고기의 원료인 비육 출하돈은 매년 10월이 가장 많은 양을 출하시키는 계절이기도 하다. 매년 10월의 돼지 도축지수는 1126으로 가장 높고 돼지 비육돈 지육단가의 가격지수는 77.5를 기록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3>참조.

이러한 원인으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수요감소와 공급증가가 겹쳐지면서 돼지가격은 폭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 금년에도 추석 전주인 9월 12일부터 9월 17일의 가격은 큰 폭락을 보여 전주의 3,800원대에서 3,500원대로 추락하고 있다.

추석 지나고 2주간 돼지고기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돼지 출하는 늘고 육가공 업체는 도축두수를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도매시장에는 돼지고기 출하물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돼지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똑같이 반복할 것이다.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계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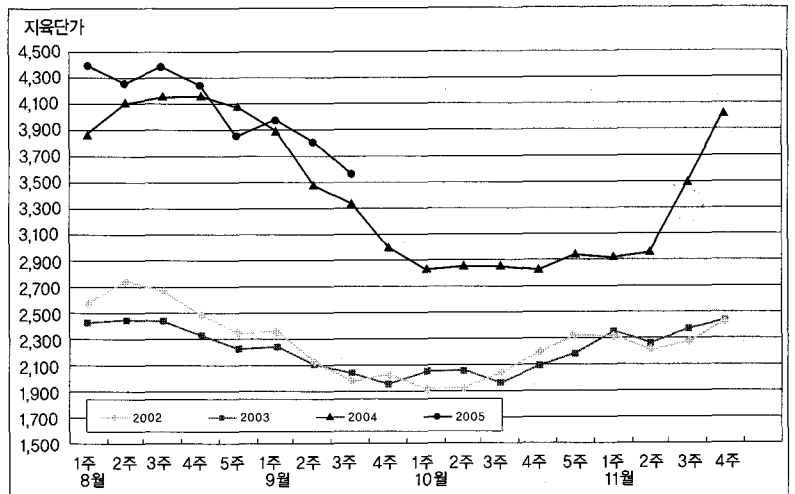
금년 8월까지 누계 돼지 도축두수는 약 8,770천 두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8.1% 감소한 추세를 보여 돼지 출하두수의 감소 추세는 금년도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 8월은 1,120천 두의 돼지가 출하되어

돼지출하두수 감소 추세가 많이 완화되어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였고 7월보다는 14.3% 증가한 추세를 나타내 전년과 같은 출하두수 감소 추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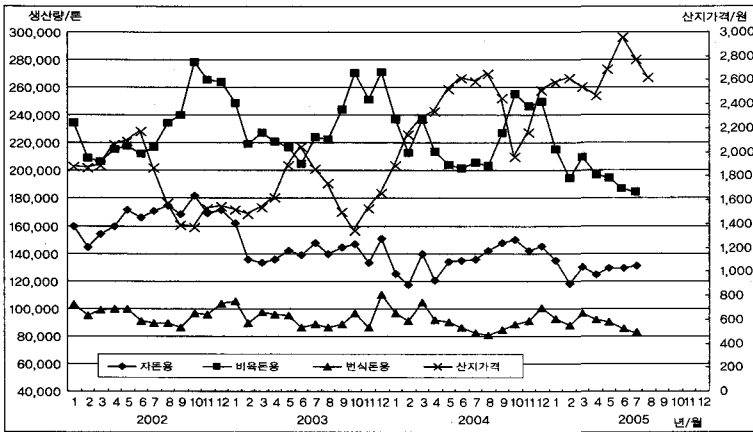
이러한 원인은 돼지 사육두수의 증가에 기인하였다기 보다는 금년 여름이 작년 여름보다는 덜 더웠던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금년 10월의 출하두수는 전년보다는 줄어 들 것으로 보여 10월의 돼지 출하물량은 1,200천두를 나타내어 전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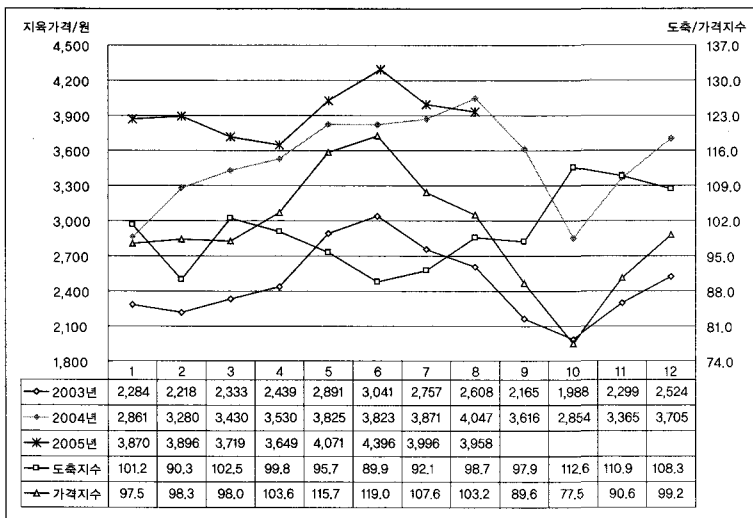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4~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측면 중 국내 돼지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돈육의 증가 추세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어 돼지고기 자급을 특히 삼겹살 하락은 우려할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금년 8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벌써 128,828톤을 기록하여 2004년도 1년간 수입량인 108,829톤을 약 118.4%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금년도 돼지고기 수입량은 16만2천톤 정도를 기록하여 돼

지고기 총 공급량은 2만 톤가량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소비 측면에선 본 돼지고기 소비 시장의 동향은 어떻게 나타 날까?

최근 육가공 업체들은 추석을 앞두고도 할인 행사 등을 통하여 도축물량의 20~40% 정도를 냉장육 유통 시키고 있으며 나머지 판매하지 못한 60~80%의 돼지고기를 냉동창고에 저장하여 올해 추석은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추석 연휴 기간이 짧아 귀향인구가 준 것이다. 어떤 통계조사에서는 직장인의 40%정도가 귀향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올해는 추석 대목이란 말이 무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소비량은 전년 동기보다 빨리 찾아온 추석과 귀향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비가 급감하여 돼지고기 시장에

도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추석을 위하여 대형 유통업체에서 준비한 선물세트의 판매가 부진하면 결국 추석 이후 소비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금년 10월 돼지고기 시장은 국내산 비육돈 출하 증가로 공급은 증가하고 수입 삼겹살의 공급도 전년보다 증가하고 소비에서는 본격적인 소비 감소 계절로 접어들면서 소비가 감소하여 비육돈 지육단가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90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